

사회복지학문 분야에서 공감 관련 연구동향 분석

Analysis of Empathy-Related Research Trends in Social Selfcare Studies

권신정, 김강민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in-Jung Kweon(ks9150@hanmail.net), Kangmin Kim(joiner5@daum.net)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사회복지학문 분야에서 공감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학문적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진행된 국내 사회복지학문 분야의 공감 관련 학술논문을 선정하여 범주체계에 따른 '기술적 분석'과 언어 동시출현 빈도를 중심으로 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학문 분야의 공감관련 연구는 200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수량적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연구분야는 '사회복지일반'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연구내용으로는 공감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관련요인연구가 가장 많았고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으로는 양적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사회복지학문 분야에서 공감 관련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분야와 연구내용의 확장 및 다양한 연구방법의 시도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 중심어 : | 사회복지 | 공감 | 연구동향 | 내용분석 | 언어네트워크분석 |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academic role of social welfare by analysis the trends of empathic research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studies in Korea,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and tasks to move forward. For this purpose, technical analysis and language network analysis were performed based on the category system and the frequency of simultaneous language presentation by selecting academic papers related to empathy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studies in Korea from 2000 to June 2020.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number of empathic studies in the social welfare field has increased steadily since 2000, and the number of studies in the last three year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research field has been mainly in the "social welfare general" category. In terms of research, the most common research was related to empath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variables, while quantitative research was the most important method used in the research. As empathic-related research increase in social welfare studies, such research results require efforts such as expansion of research field and research contents and attempts of various research methods.

■ keyword : | Social welfare | Empathy | Research Trend | Content Analysis | Keyword Network Analysis |

I. 논의배경 및 연구목적

자본주의 체제 및 인간의 생활방식, 현대과학기술의 폐해 등을 날카롭게 비판해온 행동주의 철학자 제러미

접수일자 : 2020년 08월 31일
수정일자 : 2020년 10월 05일

심사완료일 : 2020년 10월 10일
교신저자 : 김강민, e-mail : joiner5@daum.net

리프킨(J. Rifkin)[1]은 '인간이라는 종의 영속적인 생존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공감하는 사람(Homo empathicus)'라는 새로운 학명의 인간관을 제시하였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적자생존과 경쟁위주 문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의 공감을 강조한 것이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의 상당수는 공감의 결여로부터 비롯된다고 보고 사회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책은 공감의 형성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많은 영역에서 공감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사회복지 영역 즉, 사회적 위협과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하게 되는 사회복지실천 영역에도 해당된다. 공감은 사회복지실천에 너무도 당연시 여겨지는 필수요소[2]이고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복지사로서는 핵심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이다. 공감적 사회복지실천은 다양한 실천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에게 진정으로 자신의 문제를 돕고 있으며, 자신이 가진 고충이나 상황을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여 자신의 문제와 감정을 친밀하게 공유하는 협력적 관계로 이끌어가게 할 수 있다[3]. 이처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공감이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공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의 결과를 사회복지실천에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도 공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입 과정에서 공감이 미치는 여러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4].

분석에 앞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KCI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2020년 6월 현재까지 출간된 사회복지학 내에서 공감을 언어로 검색한 학술논문은 학위论문을 포함하여 총 286건이었다. 사회복지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의 공감연구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0년 무렵 급격히 증가하였다[5]. 2010년 이후로 공감과 변인들과의 관련을 밝히거나 공감 프로그램 또는 공감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이전보다 확대되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학문적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감이라는 연구주제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해 공감 연구에 있어 타 학문과 사회

복지학문의 경계가 모호하고 공감에 대한 이론도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공감을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서 다루어진 공감 연구의 흐름과 맥락을 살피고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히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진행된 공감 연구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사회복지학문 분야에서 공감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학문적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검토는 학문적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6]이며 공감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분야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연구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진행된 국내 사회복지학문 분야의 공감 관련 학술论문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이 될 문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헌을 토대로 공감 관련 연구의 기본적인 특성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시기, 연구분야, 연구내용, 연구방법의 범주체계에 따른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주제의 동향을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사회복지와 공감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감(Empathy)은 사회복지사가 원조과정 중 자신의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클라이언트의 느낌과 경험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7]. 사회복지사전에 따르면 '타인의 정서와 생각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경험하며 그것들에 반응하는 행위-the act of perceiving, understanding, experience, and responding emotional states and ideas of another person-이다[8]. 공감은 클라이언트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더 나아가 성공적 개입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실천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이처럼 사회복지분야에서 공감은 모든 사회복지

지사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본적인 실천기술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사회복지실천기술로써 투쟁완화나 갈등 해결의 중요한 요소이며[9]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시작인 것이다 [10][11].

한편, 공감의 사회복지 모델을 제시한 Gerdes와 Segal(2009)[12]은 공감의 사회복지 모델을 정서적 반응, 인지적 과정, 지각된 의사결정 등 공감구성 3요소를 제시하고 있다[표 1]. 첫 번째 요소는 정서적 반응(affective response)이다. 이는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비자발적·생리적 반응을 말한다. 두 번째 요소는 인지적 처리과정(cognitive processing)이다. 이 요소는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해석하거나 타인의 관점을 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발적 사고과정으로 자기/타인 인식, 정신적 유연성, 정서적 통제를 포괄한다. 세 번째 요소는 의식적 의사결정(conscious decision-making)이다. 의식적 의사결정은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인지적 처리과정 이후에 공감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공감의 행동적 차원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사회복지에서 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행위들에 비자발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식과정을 통해 공감적 행위들을 표출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공감 개념과 달리 사회복지분야는 독특한 공감 개념의 특성으로 공감의 행동적 요인을 강조[13][14]하는 것이다. 이는 치료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공감만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는 개입을 만들어 내는데 부족하다는 의미로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을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혹은 사회적 수준에서 공감 중심적 행동이 있어야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공감은 클라이언트를 돕는 노력과 관련될 수 있고, 사회적 수준에서의 공감은 복지정책의 입안에 영향을 주는 옹호와 같은 행동과 관련되기도 한다[13].

표 1. 공감의 사회복지모델

요소	정의	하위요인
정서적 반응	타인의 정서와 행동에 대한 비자발적·생리적 반응	정서반응, 반영, 모방

인지적 처리 과정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자발적인 정신적 사고,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아인식, 정신적 유연성, 관점수용
의식적 의사 결정	인지적 처리과정에 반응하여 이루어진 행동의 자발적 선택	공감적 행동, 이타주의

2. 선행연구 고찰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공감(Empathy)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에 속한 사회복지사, 더 나아가 실천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내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에서 공감에 관한 연구 및 그 결과를 실천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고 사회복지분야의 공감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사회복지영역에서 공감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감을 여러 변수 중 하나로 설정하여 직무성과나 서비스질을 측정하는 연구들[15-17], 공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복지전공학생과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공감과 인권감수성, 인권태도에 관한 연구[18-20], 사회복지 교육과 공감,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21]등이 있다. 또 공감을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성향 변수 중 하나로 설정하고 공감과 소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22]등에서 공감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사회복지의 역할과 정체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만의 공감을 다룬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한편, 사회복지 학문분야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는 전체적인 연구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하여 사회복지학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다수의 연구[23][24]와 연구방법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25]등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학문분야에서 수행된 개발도상국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6]와 같이 하나의 주제가 사회복지학에서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학문 분야에서 사회복지 실천영역이 갖는 특성을 반영하여 하나의 변수가 아닌 공감을 중점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였고 공감연구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연구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의 연구동향 관련 연구

는 향후 사회복지학의 연구흐름과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주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학에서 다루는 주제 혹은 개념과 관련된 연구동향 파악은 타 학문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사회복지만의 고유한 이론을 정립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분 분야에서 진행된 공감 관련 연구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사회복지에서의 공감이 이론적·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의 공감에 대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문헌수집 및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200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국내 사회복지 학문분야에서 발표된 공감 관련 논문이며 논문의 초록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논문 초록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그 논문의 핵심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록 분석을 통해 연구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5]. 이를 위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디비피아(DBPia), 스킨라(Scholar)의 4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공감 관련 논문을 검색한 결과, 2000년 이후 본격적인 공감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2000년 이후로 한정하였다. 대상논문에는 사회복지 국내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 자료에 수록된 논문들과 주요 연구보고서가 포함되며 석·박사 학위논문은 제외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공감을 키워드로 하고 있지만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이나 '공감과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논문은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인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문헌은 총 60편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범주체계에 따른 '기술적 분석'과 언어 동시출현 빈도를 중심으로 한 '언어네트워크' 분석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술적 분석은 사회복지학문

분야 공감연구의 개괄적 흐름을 살펴보는 데 한정하므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4가지 분석준거를 설정하였다[표 2].

표 2. 기술적 분석을 위한 범주체계 및 준거

범주	구분	준거
연구 시기	2000년 - 2020년	사회복지학문 분야 공감연구
연구 분야	사회복지일반, 영유아, 아동청소년, 가족, 여성, 노인, 장애인, 학교, 산업/노동, 교정, 의료, 정신건강	한국연구재단 학술 연구분야 분류
연구 내용	이해연구, 관련요인연구, 척도개발연구, 개관연구, 프로그램 개발연구, 효과연구	이영수, 김광수 (2013)
연구 방법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	이보라, 김교성 (2018)

첫째, 연구시기(별 논문 수)는 사회복지 분야의 공감연구가 2000년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문헌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바, 200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사회복지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변화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연구분야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 연구분야 분류표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해당하는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가족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학교사회복지, 산업/노동복지, 교정복지, 의료사회복지, 정신건강사회복지로 선정하였다. 셋째, 연구내용은 8가지 분류기준(①이해연구 ②발달연구 ③과정연구 ④관련요인연구 ⑤척도개발연구 ⑥개관연구 및 메타분석연구 ⑦프로그램 개발연구 ⑧효과연구)으로 분류 방법을 참고하여 연구설계 및 방법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6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표 3].

표 3. 연구내용의 분류기준별 세부내용

분류 기준	내용
이해 연구	공감의 본질과 의미의 고찰 및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관련 요인 연구	공감과 관련있는 요인을 탐색하거나 공감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
척도 개발 연구	공감 관련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개관 연구	공감 연구들의 결과를 집약, 정리하여 개관 또는 현황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연구	공감 상담 또는 공감 프로그램, 공감 모형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효과 연구	공감 상담 혹은 공감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

넷째,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로 분류하였다. 양적연구에는 설문조사 혹은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회귀분석 등 통계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해당되며, 질적연구에는 생애사, 심층면접, 근거이론 등의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혼합연구는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을 모두 사용한 연구를 의미하며, 문헌연구에는 기존의 문헌자료, 선행연구 등을 활용하여 논증의 방식을 취한 비경험적 연구가 포함된다[6].

본 연구에서 활용한 언어네트워크 분석(sematic network analysis)은 단어와 단어사이에서 연결된 네트워크 관계를 살펴보는 분석방법이다[26]. 기존 연구 동향 분석은 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수행되었는데 많은 분석시간의 소요, 분류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 등의 한계가 있다[24]. 이러한 한계를 극복함에 있어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① 드러나지 않는 주요 의미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고, ② 언어구조를 공간적으로 표시하고 텍스트 간 관계를 시각화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③여러 종류의 네트워크 중심성(centrality)분석을 통해 전체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④단어들의 구조적 분석을 파악할 수 있으며, ⑤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의 동시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28]. 따라서 사회복지학분야의 공감 연구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판단된다.

분석을 위해 수집된 논문들의 초록에서 논문의 목적과 결과를 구분한 다음, 주요 논문의 핵심 언어를 명사 기본형으로 추출하는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더 명확한 의미를 반영하기 위하여 명사분할을 실시하지 않고 복합명사 형태 그대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언어는 수치나 조사형태의 의미가 없는 키워드는 제외하였고, 공감성이나 공감 등은 공감으로, 서비스품질이나 서비스질은 서비스질로 유사한 단어를 통합하는 키워드 정제작업을 실시하였다[표 4].

표 4. 대치키워드

통합전 키워드	통합후 키워드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	사회복지
국내, 한국	우리나라
노인, 노년	노인
성공적, 성공	성공

공감성, 공감	공감
인지적, 인지	인지
정서적, 정서	정서
서비스품질, 서비스질	서비스질
품질, 질	질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이후 각 논문초록의 목적과 결과부분에서 추출된 키워드를 대상으로 키워드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NetMiner 4.3.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기본속성분석(노드수, 링크수, 고립노드, 밀도), 중심성분석(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그리고 시각화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연구특성에 따른 동향: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에서는 분석기간을 2단계로 구분했다. 사회복지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의 공감연구의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0년 무렵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5]. 따라서 연구동향의 추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분석1기, 2011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분석2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5. 연구특성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결과

논문 개요	구분	분석1기 (2000-2010)	분석2기 (2011-2020)	합계
논문 편수	발행년도	9(15.0)	51(85.0)	60(100.0)
연구 분야	사회복지 일반	3(5.0)	27(45.0)	30(50.0)
	영유아	0(0.0)	1(1.7)	1(1.7)
	아동 청소년	0(0.0)	8(13.3)	8(13.3)
	가족	1(1.7)	0(0.0)	1(1.7)
	여성	0(0.0)	1(1.7)	1(1.7)
	노인	2(3.3)	6(10.0)	8(13.3)
	장애인	1(1.7)	3(5.0)	4(6.7)
	학교	0(0.0)	0(0.0)	0(0.0)
산업/노동	산업/노동	0(0.0)	0(0.0)	0(0.0)
	교정	0(0.0)	0(0.0)	0(0.0)

	의료	0(0.0)	0(0.0)	0(0.0)
	정신건강	2(3.3)	5(8.3)	7(11.7)
연구 내용	이해연구	2(3.3)	6(10.0)	8(13.3)
	관련요인	7(11.7)	40(66.7)	47(78.3)
	척도개발	0(0.0)	2(3.3)	2(3.3)
	개관연구	0(0.0)	0(0.0)	0(0.0)
	프로그램 개발	0(0.0)	2(3.3)	2(3.3)
	효과연구	0(0.0)	1(1.7)	1(1.7)
연구 방법	양적연구	6(10.0)	38(63.3)	44(73.3)
	질적연구	1(1.7)	9(15.0)	10(16.7)
	혼합연구	0(0.0)	0(0.0)	0(0.0)
	문헌연구	2(3.3)	4(6.7)	6(6.7)
합계	9(100.0)	51(100.0)	60(100.0)	

먼저, 연구시기를 살펴보면 분석2기에 해당하는 2011년 이후 연구가 총 51편(85.0%)으로 분석 1기에 비해 약 6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공감연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과도 일치하며 다양한 영역의 논의들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처방으로서의 공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1]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분석2기에 들어 2016년에 10편, 2018년에 9편 등 최근까지 공감연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분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일반’에 해당하는 연구가 총 30편(50%)로 다수를 이루었고 아동청소년 분야와 노인분야가 각 8편(13.3%), 정신건강분야가 총 7편(11.7%)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일반’의 연구주제는 사회복지유관기관의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연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등으로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대상을 다룬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분석1기와 분석2기 모두 학교, 산업/노동, 교정, 의료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공감연구가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내용에서는 공감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거나 공감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밝힌 관련요인연구가 분석1기와 분석2기 모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총 47편(78.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해연구가 총 8편(13.3%)였고 그 외 척도개발연구, 프로그램 개발 연구, 효과연구가 1~2편으로 매우 미비하게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에 기초한 동향을 보면 양적연구가 총 44편(73.3%)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질적 연구, 문헌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사회복지 학문분

야의 연구동향 분석[6][24][27]에서 양적연구가 부각되는 현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앞서 연구내용 동향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감의 관련요인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한 것과는 연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1기, 분석2기 모두 혼합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2. 연구주제의 동향: 언어 네트워크 분석

2.1 네트워크의 기본속성 분석

사회복지분야 공감연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의 기본속성을 분석하였다. 네트워크는 노드(node)와 링크(link)로 구성되어 있다. 노드는 논문에서 추출된 주요 키워드들로 고유한 속성을 가지는 행위자로 연결의 대상을 의미하며, 링크는 노드들 간 연결된 관계를 의미한다[28]. 고립노드(isolated node)는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관계가 전혀없는 노드이다. 밀도(density)는 네트워크 내 결속을 보여주는 지표로[29], 네트워크 속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활발한가를 나타낸다[표 6].

목적 네트워크의 구조는 156개의 노드와 58개의 링크로 구축되어 있으며, 57개의 고립노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 네트워크는 88개의 노드와 59개의 노드로 연결 관계를 형성하면서 단 하나의 고립노드도 발견되지 않았다. 고립노드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 네트워크가 목적 네트워크에 비해 더욱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행위자 간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결과 네트워크의 밀도가 목적 네트워크의 밀도보다 높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밀도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행위자가 모두 연결되어 있을 때 1의 값을 가지는 완벽한 밀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때, 사회복지분야 공감연구 키워드들 간의 연결정도는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표 6. 네트워크의 기본속성 분석

	목적 네트워크	결과 네트워크
노드	156	88
링크	58	59
고립노드	57	0
밀도	0.002	0.008

2.2 네트워크 구조

일반적으로 시각화한 네트워크 구조의 중심부는 주변부에 비하여 복잡한 연결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 연구의 목적 및 결과 네트워크는 복잡한 중심부를 가지는 일반적인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가 아닌 흩어져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흩어진 구조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목적 네트워크에서는 사회복지사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결관계가 드러났으며 결과 네트워크에서는 공감, 공감능력과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서비스 간의 긴밀한 연결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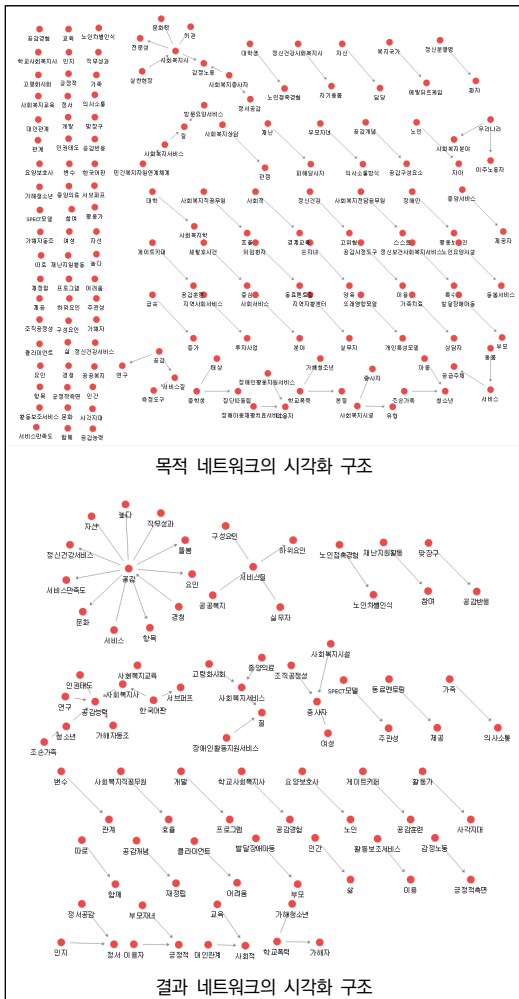


그림 1. 목적 및 결과 네트워크의 시각화 구조

본 연구는 사회복지분야 내에서의 공감연구의 키워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공감연구들의 목적과 결과 간의 연결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목적 네트워크와 결과 네트워크의 분석지표를 통합하여 시각화하였다(그림 2). 통합 네트워크 역시 전반적으로 흩어진 구조를 보이고 있었으나 공감능력과 사회복지사와 같은 일부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연결관계가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공감연구의 목적과 결과 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와 공감능력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실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결과나 함의가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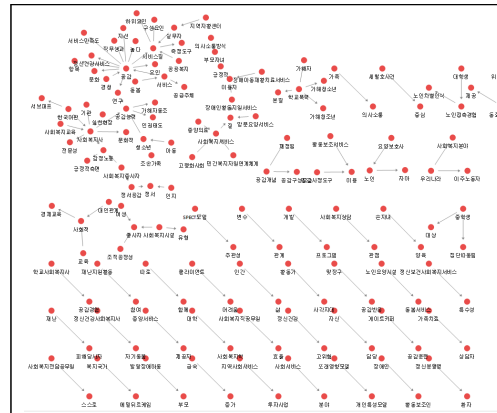


그림 2. 통합 네트워크 구조의 시각화

2.3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키워드들이 가지는 영향력과 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분석하였다 [표 7].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한 노드와 연결된 정도를 보는 개념으로 네트워크 내 행위자(노드)들이 다른 행위자들과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즉, 어떤 키워드가 공감연구와 핵심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청소년, 감정노동, 이용자가 동일한 수치를 보이며 가장 높은 그룹으로 분석되었다.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한 키워드가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키워드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이다. 다른

키워드들과 연결되기 위하여 꼭 거쳐야 하는 다리 (bridge)역할을 하는 위치에서 네트워크의 연결흐름을 조절하고 통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30].

목적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질’, ‘청소년’, ‘감정노동’, ‘이용자’가 상위 그룹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매개중심성에서는 ‘사회복지사’, ‘서비스질’,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가 상위그룹에 위치하고 있는 키워드들로 나타났다.

결과 네트워크에서는 공감능력과 종사자 키워드가 가장 높은 연결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공감’, ‘공감능력’, ‘사회복지사’, ‘서비스질’, ‘청소년’, ‘사회복지서비스’ 키워드 순으로 매개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목적 네트워크와 결과 네트워크에서 연결중심성이 모두 높은 키워드는 ‘질’이었으며 매개중심성이 동시에 높은 키워드는 ‘사회복지사’, ‘서비스질’, ‘사회복지서비스’로 나타났다.

표 7. 목적 및 결과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순위	키워드	중심성수치	순위	키워드	중심성수치
목적 네트워크	1	질	0.012903	1	사회복지사	0.000168
		청소년		2	서비스질	
		감정노동			서비스	
		이용자			사회복지서비스	
결과 네트워크	연결			매개		
	1	공감능력	0.064483	1	공감	0.002406
		종사자		2	공감능력	0.001604
	2	서비스질	0.022989	3	사회복지사	0.000802
		공감		4	서비스질	0.000535
		사회복지사		5	청소년	0.000401
		질		6	사회복지서비스	0.000267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적				
		긍정적				
	정서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복지 학문분야의 공감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공감과 관련된 사회복지의 학문적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사회복지 학문분야에서 진행된 공감 관련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별 연구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공감 연구가 수량적으로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총29편의 연구가 확인되었고 약 20년 간 이루어진 연구의 1/3을 차지한다. 이는 최근 사회복지 학문분야에서 공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활발하게 연구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분야별 공감연구는 ‘사회복지일반’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특정대상이나 현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이나 전달체계와 관련된 만족도 측면에서 공감을 측정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 현상이 양적으로 팽창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복지 유관기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확대를 주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사회복지분야의 공감연구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인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대상자의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공감능력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서비스 품질이나 전달체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연구가 주를 이룬 것이 필연적이거나 향후 사회복지영역에서 공감과 관련된 연구는 좀 더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이 요구된다.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학교, 산업/노동, 교정, 의료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연구가 전무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공감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실천기술이므로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욕구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공감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내용과 관련된 공감연구는 공감과 다른 변

인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78.3%)가 주를 이루었다. 공감의 본질과 의미의 고찰 등을 다룬 이해연구(13.3%)도 확인되었으나 한국 사회복지학문 분야만의 공감개념, 공감이론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감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만큼 복잡하고 다의적이어서 개별 연구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개별 연구에서 공감의 개념이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면 학문적 결과의 누적이 어렵고 이에 따라 하나의 연구영역으로 성립되거나 학술적으로 사용되기 모호하고 어려운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복지분야 공감연구 키워드들 간의 연결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 것도 이와 관련된 결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복지학문 분야만의 공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상황 등을 반영한 결과여야 한다. 또 공감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를 위한 척도개발연구도 아주 미비하게 나타났는데 공감에 대한 이해연구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공감척도개발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감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은 양적연구(73.3%)였고 이는 연구내용 결과에서 나타난 관련요인연구가 많았던 부분과 맥을 같이한다. 이는 사회복지대상자와 관련된 제반 특성과 현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나 이를 기반으로 향후 더욱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질적연구와 두 가지 연구방법을 통합한 혼합연구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연구방법의 방법론적 우월성을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국 사회복지학이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되고 양적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Jeremy Rifkin, *The Empathic Civilization*,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 [2] 김용석, 송진희, 김묘정, 조민영, “한국어판 사회복지사 공감척도의 타당화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4권, 제1호 pp.188-213, 2016.
- [3] 권행운, *사회복지사의 특성과 공감유형*,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4] 김용석, 송진희, “대인관계·사회적 공감 척도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제20권, 제3호, pp.127-159, 2018.
- [5] 유찬기, 남기범, “사회과학의 공감연구 동향과 특성,” *문화콘텐츠연구*, 제13권, pp.75-100, 2018.
- [6] 이보라, 김교성, “사회복지 학문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관한 연구 동향,” *한국지역복지학회*, 제65권, pp.31-64, 2018.
- [7] 양옥경, *사회복지실천론*, 파주: 나남출판사, 2010.
- [8] R. L. Barker, *The Social Work Dictionary*, Washington DC: NASW Press, 2008.
- [9] 윤현숙, 김기환, 김성천, 이영분, 이은주, 최현미, 홍금자,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서울: 동인, 2002.
- [10] 이준우, 이화옥, 임원선,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인간과 복지, 2006.
- [11] 전재일, 이성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대구: 형설출판사, 2002.
- [12] K. E. Gerdes and E. A. Segal, “A social work model of empathy,” *Advances in Social Work*, Vol.10, pp.114-127, 2009.
- [13] K. E. Gerdes, C. A. Lietz, and E. A. Segal, “The structure of empathy in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Vol.1, No.5-8, pp.679-695, 2011.
- [14] S. King and M. J. Holosko,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empathy scale for social worker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Vol.22, No.2, pp.174-185, 2012.
- [15] 유인애,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공감(compassion)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 자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16] 정무성, 노승현 “지역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질이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제5권, 제1호, pp.163-207, 2006.
- [17] 황성준, 이재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식하는 공공복지서비스 질의 수준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2호, pp.257-272, 2015.
- [18] 하경희, 강병철, “대학생의 인권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2호, pp.183-202, 2009.

- [19] 손덕순, “요양보호사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제48권, pp.299-322, 2010.
- [20] 박지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제33권, pp.1-27, 2016.
- [21] 이현지 “요양시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죽음태도와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임종보호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제52권, pp.31-51, 2015.
- [22] 홍석자, 서상범,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환경과 개인적 성향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42권, 제4호, pp.187-216, 2011.
- [23] 감정기, 감미아, 박미희 “사회복지학 연구동향에 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제68권, 제2호, pp.185-211, 2016.
- [24] 최재성, 정세정, 조자영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최근 10년간 연구경향 특성,” 한국사회복지학회, 제68권, 제1호, pp.73-94, 2016.
- [25] 선미정, 정원미, 장정은, 전종설, “사회복지분야 혼합연구 동향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제70권, 제2호, pp.275-298, 2018.
- [26] R. Popping,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Sage Publication, Thousand Oaks, CA, 2000.
- [27] 황성철,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제7권, pp.153-177, 2002.
- [28] 이수상,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2012.
- [29] 김용학, *사회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2003.
- [30] 손동원, *사회네트워크 분석*, 서울: 경문사, 2005.

저 자 소 개

권 신 정(Sin-Jung Kweon)

정회원



- 2008년 8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
- 2013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6년 3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현재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수료

후 연구생

〈관심분야〉 :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

김 강 민(Kangmin Kim)

정회원



- 2014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9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행정대학원 강사
- 현재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